

한일 미래 세대들의 만남 제 13회 한일 미래 포럼 참가 소감문

연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18학번 김지수

최고의 대외활동(?)

이전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이렇다 할 대외활동에 참가한 바 없기 때문에 소제목 옆에 물음표를 붙였지만, 감히 단언하자면 이번 한일 미래 포럼 활동은 앞으로도 시간이 허락하는 한 다시 한 번 참가해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활동이었습니다. 나의 세대가 기성세대가 되어야지만 논의 가능한, 해결을 도모할 만한 무거운 주제라고 생각했던 한일 관계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각국의 젊은 세대들이 모여 논의했다는 소중한 경험을 얻음과 동시에 그 현장에서 보고 들은 모두들의 귀중한 의견과 비슷한 시간을 살아왔음에도 저보다 훨씬 깊은 생각을 하는 팀 메이트들을 보며 정말 무수한 영감을 얻었고 자극을 받았던 목직한 2박 3일이었습니다.

최근들어 급 냉랭해진 한일 관계 속에서 과연 한국과 일본의 젊은이들이 융화되어 화목하게 토론을 진행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사카로 떠나는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도 의심했던 저에게 2박 3일 간의 여정은 정말 놀라운 광경의 연속이었습니다. 때때로 조금은 예민한 사안일지라도 필요하다고 생각될 시에는 당당하게 의견을 피력할 줄 아는 화자의 태도와 그러한 내용들을 수용하고자 하는 청자의 태도를 골고루 갖춘 사람들이 거의 엮기 전부였기 때문에, 더욱더 스스로가 하는 언행에 대해 신중하게 되는 저를 보면서 이것이 바로 시너지 효과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특히, 미디어 팀인 저희 조에서는 아무래도 상대국의 태도나 상황에 대하여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이유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는데, 아무래도 상대국의 학생들이 듣기에는 조금 불편한 내용에 대한 토론을 필요로 하는 주제였기 때문에 토의에 앞서 미리 긴장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모두가 토의에 집중하고 저도 그 중의 한 사람이 되어 녹아들자 긴장은 어느덧 사라지고 포럼활동에 열중하고, 또 조금 더 내용적으로 도움이 되고 싶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체감상 짧아서 아쉬웠던 토론, 발표준비를 거쳐 성공적으로 발표를 마친 것도 성공적인 수확입니다만 제가 더욱이 의미를 두고 싶은 부분은 또 있습니다.

바로, 공식적인 포럼 절차 과정 이외에 팀메이트 뿐만 아니라 아이스브레이킹에서 만난 인연들과 토론 주제가 아닌, 사소한 주제라도 즐겁게 공유하던 모든 순간들입니다. 매 식사자리마다

대화가 끊긴 적이 없었고, 오히려 넘쳐나는 이야기에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다음 학기에 교환학생으로 일본에 가는 한국 참가자, 반대로 한국으로 오는 일본인 팀메이트들의 이야기, 그리고 정말 친구들끼리 나눌 법한 사담까지 정말 서로의 이야기로 가득한 조였습니다. 물론, 그 참가자들 중에 아마 제가 말이 제일 많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ㅎㅎ

그렇지만 한때 토론 준비 과정에서 의견 충돌을 겪어 잠시 곤란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에도 한 걸음 씩 서로 물러서서 입장을 이해해보려 하고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도 최대한 그 두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주면서도 준비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화해하도록 할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토론 준비를 마치고 저녁시간이 되자 자연스레 풀어지는 분위기가 되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대학교에서 그룹발표를 준비할 때 만나는 조원들과는 거리감에서부터 차이가 있던 이번 포럼 활동에서의 우리 미디어 팀은 정말 어느 때는 동기처럼, 친구처럼 그렇게 각자에게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앞으로 또 한일 미래 포럼에 참가할 것인가 물어보면, 고민할 필요없이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 참가하면서 언젠가는 나도 이러한 활동을 기획하는 데 참여하고, 또다른 참가자들에게 편안하게 노력할 수 있는 포럼장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일본어는 아니지만, 소속 대학에서 외국어를 전공하고 있는 한 학생으로서 한 나라의 문화요소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깊게 만족할 수 있었던 활동이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저희 참가자 모두에게 제공해 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신 집행부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